

엔씨소프트(O36570/KS)

Analyst 남효지 hjnam@sks.co.kr / 3773-9288

SK증권 리서치센터

NC is starving

- 신작 5종 개발 상황 점검 및 전사 전략 방향성 확인
- MMORPG 외 다른 장르에서도 성공 가능성 확인. BM이 관건이나 과거와 같은 과도한 과금 지양, 유저 소통 강화, 장르별 깊은 이해도, 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확인
- 하반기부터 출시 예정작들의 CBT, 마케팅 전개되며 본격적으로 기대감 형성될 것

- 동사는 4/22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출시 준비 중인 다수의 신작들의 개발 진척도와 전사 전략 방향성에 대해 공유. 그 동안의 가차 중심의 게임, 과도한 과금 유도, 유사한 게임성 등으로 유저 이탈과 함께 엔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특히 작년 분기 실적의 적자 전환 및 연속적인 신작 흥행 실패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낮아져 있는 상황
- 경영진은 현재 동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변화를 위한 노력 중. 특히 고정비 개선을 위해 작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 내 중복 기능 제거. 핵심 타이틀 중심의 개발 스튜디오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발 집중도 향상,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개발 속도 가속화
- 효율적이고 퀄리티 높은 신작 개발을 위해 클러스터 전략 도입. 비슷한 장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 best practice 공유. 클러스터 내 리소스와 에셋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통해 노하우와 테스트에서도 시너지 낼 수 있음
- 작년 3종의 신작 출시했으나 모두 흥행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출시 예정작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음. 다만 작년 신작들은 개발 기간도 짧았고 주요 라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동사의 개발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앞으로 출시 될 핵심 타이틀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발 기간 및 규모있는 개발비 투자, 심도있는 고민을 거쳐 콘텐츠와 bm을 형성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달리 가질 필요 있음
- 26년까지 주요 신작 5종 출시 계획. 슈팅 장르 3종 <LLL>, <Time Takers>, <Bonfire>, MMORPG <아이온2>, 서브컬처 RPG <Breakers: Unlock the World>. 그 외 스피노프 4~5종, 비공개 신작도 있음. 연내 출시가 기대되는 작품은 <LLL>, <아이온2>, <Breakers>. 27년에는 글로벌 메가 IP 기반의大作 준비 중
- 현재 동사의 캐쉬카우는 리니지 3형제, 동사는 MMORPG 장르에는 강점이 있으나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우려 높았으나 금번 행사를 통해 일부 해소. MMORPG 외 다른 장르에도 깊은 이해도, 콘텐츠에 대한 진심, 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확인
- 과거 동사의 신작들은 외부 피드백을 제한적으로 반영. 앞으로는 출시 전 고객 대상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 콘텐츠 구현 방향과 타겟층 취향 적합도를 확인하고, 철저한 기술성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 회복할 것
-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 및 내년을 봐야 함.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예정작들의 CBT, 마케팅이 전개되며 기대감 형성될 것. 낮아져 있는 동사의 주가 수준에서는 downside 보다는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